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교육장과 열린 대화

전국에서 열 일 제치고 이 자리 참석한 교육감, 교육장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것도 고맙고 오늘 토론하시는 것을 보니까 매우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줘 고맙습니다. 특히 사례를 발표해 주신 분들, 사례 발표는 저희에게 감동이라 할 만한 느낌을 줍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좋았습니다. 교육부도 수고했고 혁신위도 수고 많았습니다. 혁신위원장은 사회도 참 잘하시네요.

방과후학교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

오늘 여러분들 발표를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나 각별히 이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관심 수준이 아니고 어찌면 이것이 승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설문조사 하면 부정적 내용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들 가끔 만나면 내가 알기론 괜찮은 선생님, 생각 좋고 아이들에 열정 많은 선생님인데, 이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죽었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서 내용이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수만 늘어놓은 게 아니고 발표 목소리에서부터 실제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살아 있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서, 사람 하는 일에는 역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도 이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 교육장관, 정책실, 공무원들과 만나 자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 토론을 하는데, 오늘, 우리끼리 만나 얘기했던 것에서 미칠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고되고 발표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자발적으로 가고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을 스스로 열어나가는 것을 보고 자생력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애로는 돈이 그렇고, 선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줘야 하는데 흔쾌히 참여하는 분위기 넘어서야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려니 돈이 필요한데 학생, 학부모, 국민의 신뢰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아는 사람끼리 보면 괜찮은 프로 같은데. 오늘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잘 갈 것 같은데, 문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3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돈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 명분으로 드리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좀 더 활력 있게 되려면 지자체가 좀 나서 주면 경쟁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 간에 행정의 성과 문제로 이것이 연결되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중앙정부 돈 줄 때 가장 큰 문제가 금액도 문제이지만 결국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없는 사업도 많습니다. 과감하게 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이라는 게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효율성 높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참여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도 생각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중앙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고, 중앙정부가 내야 할 돈을 내도록 예산처 장관에게 저도 잘 당부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니깐요. 돈 내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교육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

제가 변호사 하던 시절에 청소년 국선 변호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그 아이들이 법정에서 안 올 수 있고, 법정에서 와도 좀 더 투자해서 사후 관리하면 뒷날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은 없을 텐데 사전에 제대로 투자, 관리를 못해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계산될 수 없는 비용,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미래, 성공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호주의 보고서 보니까 13배라고 하는데, 어쨌든 교육 투자라는 게 엄청난 효과를 갖습니다. 경쟁을 위한 투자도 투자이지만, 보다 더 창의성과 사회성을 길러 주고 사람의 품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내는 교육이야말로 투자 효과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하겠습니다. 임기 2년 남았는데 투자 해봐야 얼마 하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예산을 두 번 짤 수 있고, 수도 파이프 한번 크게 달면 그 다음에 줄이지 못합니다. 아예 줄이지 못하게 드럼통, 물통이 아니라 파이프를 딱 달아 놓겠습니다. 성공만 시켜 주십시오.(박수)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것이 목표

이것이 학교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각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 교육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종합하고 지원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해 오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만큼 온 줄도 모르고 계속 재촉하다가 보고 받으니까 이미 시작한 것을 알았고, 이만큼 발전한 것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한 것은 1년 반쯤 전이고 생각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국회 교육상임위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의 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자리에만 앉으시면 학교가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붕괴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학교를 죽을 판을 만들어.”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교실 붕괴가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괜찮다는 말을 들었지만, 학교 붕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누구도 설 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설 땅이 없죠. 공교육 무너지는데 무슨 보람, 존경이 있겠습니까.

“공교육인 학교를 살리자, 어려우니까 자꾸 학원을 좋아하니까, 학원에 가면 있는 게 학교에 없으니까 그걸 학교 안으로 들여놓자, 경쟁하면 왜 못하나, 전기세, 물세 다 주고 집세 안 내는데 선생님들이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성한 학교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학교에 갖고 오면 되냐는 것에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지요. 어디 물어봐도 얘기가 안 됩니다. 참 이상하다. 어느 선생님을 만나도 교실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선생님 못 봤습니다. 뻔히 망하는데 명분 때문에 현실 외면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좀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점이 장애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 장사꾼 들어오면 되냐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들이 하라고 하면, 근무 시간이 있고 교육 말고 잔무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내라는 서류가 많은데 이것까지 하라는 것이냐, 못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지요?

망하는 수밖에 없지요. 딱 대답이 망하자 아닙니까. 망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교실 붕괴 지켜만 보면 시간 흐를수록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들도 안 되는 것, 골머리 썩지 말고 임기 마치고 은퇴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앉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학 입시 부활 반대하는 것이 바로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대학입시를 본고사로 가버

리면 고교 입시를 부활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시켜주고 압력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은 장사가 훨씬 달콤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학원 강사가 훨씬 족집게처럼 짚어내고 그것이 강사는 자랑이지만, 선생님은 그게 자랑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방과후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거라도 가져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학교 공교육 살릴 더 좋은 대안 있으면 얼마든지 중앙 정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안 없이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라도 해서 살려갑시다. 애로 해소하고 장애 뛰어 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세계 경쟁에서 이기고 사회도 합리적인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한국의 미래 키워드가 뭐냐. 교육입니다. 일등이 되자고 해도 교육이고 양극화 해소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고, 뭐든지 교육 빠지고 되는 것이 없는데 학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생각은 있어도 손발 안 맞아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조금 노력하면, 학교 현장만 같이 가주면 여건은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아이디어만 특별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 외에 뒷받침하면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선생님 수업하는데 내신이 낮으면 아이들이 딴 생각 하지요. 수업 시간에는 자고, 학원 갈 생각하고. 꼭 성공시켜서 선생님도 제자리에 올라서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이 되도록 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

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센터가 있지만, 행정 서비스 수준이고 진정한 공동체는 학교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선생님 부담 많아 지겠지만 공동체 복원시키는 구심점으로서, 그것이 미래 내다보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자체가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단체장도 모시고 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들을 가지고 전국의 우수 사례, 모범 사례를 계속 홍보해 벤치마킹이 늘 일어나도록 하고, 공유하기 위한 포럼도 하고, 끊임없이 자극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역에서 자극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에서 협의체 만들어 교육 혁신포럼,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바로 서는 일에 적극 투자할 것

생각을 유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돈 얘기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나, 노력하면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학부모들로부터 프로그램이 신뢰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순서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저는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 못지 않게 지불해야 합니다. 스승이나 한편으로 직업인인데.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편이 되면 부모는 학원비의 절반 수준이라도 부담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이 부분을 받쳐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부모에게 학교에 돈 내지 말고 세금 내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 복지 수준과 재정 규모의 수준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민 공감대 형성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공교육이 바로 서면 사교육으로 쓰고 있는 돈을 줄여주고 정부가 공교육 부담을 좀 하고, 지자체가 좀 더 부담해서 공교육 부담 늘리고 사교육 부담 줄이는 재정 운

용도 준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 안에서도 다른 예산을 옮겨서라도 쓰도록 1차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교육 예산이, 공교육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정 줄일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 장관이 돈 내놓으시구요,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국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투자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같이 해서 꼭 한번 성공시켜 봅시다.